



[6~7]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p>성인(聖人)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을 서게 해주고, 가까이 자기를 비추어 보아 남을 해아리며 인(仁)을 실천합니다.</p>	<p>성인은 편애[仁]하지 않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도, 욕망도 없게 하고, 영리한[賢] 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p>
 <p>갑</p>	 <p>을</p>

6.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위(人爲)가 사회 혼란의 원인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인간의 악한 본성이 변화 가능함을 무시하고 있다.
- ③ 덕에 의한 통치가 부국강병의 핵심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인의(仁義)의 실현을 위한 통치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신분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 제도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7.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문제 상황>

고등학교생인 A는 학년 초부터 한 친구가 다른 여러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A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보기>

ㄱ. 친구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해아리지 못했다.
 ㄴ.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베풀지 못했다.
 ㄷ. 가족에 대한 사랑을 친구에게 확대하여 실천하지 못했다.
 ㄹ. 친구를 도와줘서 생길 이해(利害)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동정심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이며 도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는 시인(是認)과 부인(否認)의 정서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다.
 을: 동정심이 의무에 합치될 경우,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결코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정심에 의한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기>

ㄱ. 갑은 이성 그 자체는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ㄷ. 갑은 도덕 판단의 근거를 감정으로, 을은 이성으로 본다.
 ㄹ. 갑, 을은 사회적 승인의 여부로 선·악이 결정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사회 사상적 특징을 비교하시오.

갑: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킨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가의 부(富)를 증진시킨다.
 을: 의사가 제대로 된 처방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듯이 경제 공황도 치료가 가능하다. 경제 공황의 원인은 수요의 부족이며 제3의 경제 주체가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사상적 특징을 비교해 보면, 시장에 대해 ㉠ 갑은 정부가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고, ㉡ 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자원 배분의 경우 ㉢ 갑은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이익 추구를 통해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 을은 모든 기업의 국유화를 통해 평등한 분배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 갑과 을은 모두 자유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세계의 본질은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로 인해 생긴 욕구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고통을 겪는다.
 을: 인간의 본질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의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 ① 삶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가?
- ② 합리적 사고를 통해 보편적 윤리 법칙을 발견해야 하는가?
- ③ 개인의 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문제를 중시해야 하는가?
- ④ 대중의 의견에 따라 인간의 불안과 절망을 극복해야 하는가?
- ⑤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11.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A에 들어갈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적절한 때에, 적절한 근거 위에서, 적절한 사람에 대해,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최선의 정도로 감정을 가지는 것이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덕을 지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며 숭고한 것이다.</p>	

- ① 스마트폰을 네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렴.
- ② 스마트폰 사용에는 중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렴.
- ③ 스마트폰 사용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기르렴.
- ④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쾌락의 총량을 계산해 보렴.
- ⑤ 스마트폰이 필요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사용하지 마렴.

12.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격(格)은 이름[至]이고, 물(物)은 사물[事]과 같다. 그러므로 격물은 사물의 이치[理]를 궁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p> <p>을: 격은 바로잡음[正]이고, 물은 내 마음이 닿는 일[事]이다. 그러므로 격물은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본체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p>
(나)	

- ① A: 양지(良知)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인가?
- ② A: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 ③ B: 앎[知]과 실천[行]은 선후의 구별이 없는 것인가?
- ④ B: 옳은 행위를 위해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야 하는가?
- ⑤ C: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이치를 마음 밖에서 찾아야 하는가?

13. 그림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의 실천을 통해 최고선에 이를 수 있습니다.</p>	<p>신이 곧 세계이며, 인간은 신의 유한한 양태이므로 자연의 인과법칙에 따른 필연적 질서를 인식한다면 최고선에 이를 수 있습니다.</p>
<p>갑</p>	<p>을</p>

< 보기 >

ㄱ. 갑은 신앙과 이성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한다.
 ㄴ. 을은 신을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간주한다.
 ㄷ. 갑은 자연을 유일신의 창조물로, 을은 신 그 자체로 여긴다.
 ㄹ. 갑, 을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 (나)의 사상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프롤레타리아는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에게서 일체의 자본을 빼앗는다. 그리고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에 집중시키며,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나) 자유 없이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 ① (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② (가)는 평등 사회를 위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 ③ (나)는 능력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한다.
- ④ (나)는 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한다.
- ⑤ (가), (나)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폭력 혁명을 주장한다.

15. 갑, 을, 병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성(性)은 기질(氣質)의 성이며, 기질의 성이 본연의 성을 포함[兼]하고 있듯이 정(情)도 칠정(七情)뿐이다.

을: 성에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의 분별이 있듯이, 정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사단과 칠정(七情)으로 구별할 수 있다.

병: 성은 이(理)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 대상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嗜好)을 말하는 것이다.

- ① 갑은 선한 정을 기가 발하여 나타난 것으로 본다.
- ② 을은 이와 기 모두 스스로 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병은 마음에 내재한 인의예지를 도덕적 본성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덕을 생득적인 것으로, 병은 후천적인 것으로 본다.
- ⑤ 갑, 을, 병은 사단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본다.

16.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실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저는 행복은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p> 
<p>저는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고, 정념이 없는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행복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렇다면, 저와 당신은 '㉠'고 보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군요.</p> 

- ① 인간의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행복이 실현된다.
- ② 행복은 욕구의 완전한 충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③ 행복은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④ 행복한 삶에 도달하기 위해 절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⑤ 운명의 개척을 통한 마음의 평정이 행복한 삶의 핵심이 된다.

17.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므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 주권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을: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인데, 우리가 도로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법을 지키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 ①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됨을 강조한다.
- ② 강력한 통치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의 지배 체제를 부정한다.
- ③ 국가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 ④ 개인과 유기적 관계인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 ⑤ 국가를 개인들의 동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간주한다.

18. 다음 현대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약국의 처방전이나 요리책의 요리법처럼 적용해야 할 일련의 규칙도 아니다. 도덕에서 필요한 것은 현존하는 문제와 악(惡)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탐구 방법이다. 도덕에 적용된 탐구 방법이 현존하는 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한에서 그것을 선(善)으로 간주한다.

- 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불변하는 법칙의 발견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본다.
- ③ 도덕적 행위는 사회적 유용성과 무관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도덕적 지식은 보편타당하며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⑤ 도덕 문제에는 경험적 탐구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19. 그림의 이야기를 쓴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석(石)이라는 목수가 커다란 나무를 그냥 지나치자 그의 제자들이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석은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빨리 부식하고, 기둥을 만들면 썩이 쓰는 무용(無用)한 나무이니, 쓸모없기에 장수(長壽)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날 밤 꿈에 나무가 나타나 석에게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쓸모없기를 바랐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완전히 그리되었으니, 그것이 나의 큰 쓸모일세. 내가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썩 수 있었겠는가? 그대와 나 모두 한낱 하찮은 사물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대는 상대방만을 하찮다고 한단 말인가?"

- ① 오감(五感)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추구한다.
- ②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주관을 확립한다.
- ③ 시비(是非)를 판단하기 위한 분별적 지혜를 중시한다.
- ④ 예(禮)를 실천하기 위해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 ⑤ 일체의 차별에서 벗어나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존중한다.

20. 다음은 신문 칼럼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칼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감정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공적인 삶에 남성적 사고가 어울린다고 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 더욱이 도덕적 측면에서도 이성을 강조하는 정의(正義) 윤리에 따라야만 도덕적으로 성숙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입견이 강하다. 이에 대해 오히려 여성의 특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현대 서양 사상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상가는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은 서로 다르게 발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껏 감춰졌던 여성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상가의 견해에 따라 진정한 도덕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 ... (후략)...

- ① 남녀가 지닌 도덕적 특성이 동일함을 중시해야 한다.
- ② 남성적 사고가 여성적 사고보다 우월함을 강조해야 한다.
- ③ 인간관계에서 합리적 판단 능력만큼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
- ④ 개인 간의 유대감과 보살핌보다 권리와 규칙을 중시해야 한다.
- ⑤ 도덕적 행위에서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